광주·전남 스타 2008 영광을 위하여

KIA 중흥의 기수 서 재 응

“부활의 원년”

“야구 명가 옛 명성 되찾아 V10 이룰 터”

‘메이저리그 28승’ 자존심 회복도 노려

“2008년을 부활의 원년으로 삼는다.”

구랍 7일 10년간의 미국생활을 청산하고 KIA에 새 둥지를 튼 우완투수 서재응(31)이 2008년을 위한 힘찬 전진을 시작했다. 올 한해 서재응은 지난해 최하위 성적을 기록하며 몰락한 ‘팀 부흥’과 메이저리그 28승 투수로서의 ‘자존심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만큼 마음이 바쁘다.

인하대에 재학중이던 서재응은 1998년 뉴욕 메츠 유니폼을 입고 미국 무대에 진출했다. 미국 진출 후 오른쪽 팔꿈치를 수술하면서 2년간의 재활기간을 거치는 등 시작은 순탄치 않았다.

수술 후 시속 150㎞에 이르던 구속이 140㎞초반으로 떨어졌다. 떨어진 스피드를 만회하기 위해 제구력을 바탕으로 피나는 훈련을 거쳐, 2002년 9월 메이저리그 무대에 섰다.

이후 2003년 메츠의 선발 투수로 날카로운 제구력을 앞세운 피칭을 선보이며 ‘컨트롤의 마법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2006년 후반기에 좋은 투구를 보이며 어느 때보다 기대가 컸던 2007년. 스프링 캠프 시범 경기에서도 훌륭한 피칭을 보이며 확실한 선발 자리를 잡는 것 같았다. 그러나 제구력 난조로 심한 기복을 보이며 3승4패 평균자책점 8.13의 부진한 성적으로 5월말 마이너리그 트리플A로 강등됐다. 트리플 A에서 9승4패, 평균자책점 3.69를 기록하며 호투를 보였지만 빅리그로 복귀하지는 못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컸던 2007년 서재응은 미국 무대의 한계를 느끼며 결국 국내로 복귀하게 됐다.

뉴욕메츠, LA다저스와 탬파베이의 유니폼을 입으면서 메이저리거로서 거둔 승리는 28승. 메이저리그에 대한 아쉬움은 남지만 서재응은 KIA에서 좋은 기량으로 부활해 그 아쉬움을 보상받겠다는 생각이다.

지난해 제구력이 흔들리며 기복이 있었지만 풍부한 경험을 통해 쌓은 노련함으로 ‘컨트롤의 마법사’라는 명성을 선보일 예정이다. 팀과 팬의 전폭적인 지지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마음의 안정도 이루었다.

서재응의 합류로 KIA는 투수왕국이라는 옛 명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한기주·김진우 등 시속 150㎞대의 강속구를 보유한 젊은 투수들이 많은 KIA에서 확실한 기교파 투수 부재의 공백이 컸었다.

확실한 1선발 없이 주먹구구식 투수 로테이션 운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KIA는 서재응을 필두로 윤석민과 용병투수로 3선발을 갖추게 됐다. 선발이 안정되면 그만큼 유능한 젊은 투수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면서 탄탄한 마운드를 꾸릴 수 있다. 8개 구단 중 투수 잠재력을 가장 높게 평가받고 있는 만큼 서재응의 선진 야구 경험이 신인급 투수들에게 전수된다면 투수왕국 재건도 멀지 않아 보인다.

화끈한 성격에 ‘나이스 가이’로 통하는 만큼 팀 분위기 쇄신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KIA는 ‘V10’으로 향하는 여정에 한결 여유가 생겼다.

미국에 머물면서 신변을 정리하고 있는 서재응은 이달 9일 시작되는 괌 전지훈련 합류를 위한 몸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서재응은 “야구 명가 타이거즈의 부활과, ‘아직 서재응이 죽지 않았구나’라는 말이 듣고 싶다”며 “20대 전성기 만큼 공을 던질 수는 없지만 지난 세월 축적된 노하우로 팀우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역대 최고 용병 호세 리마 영입”

〈ML 89승 투수〉

“제구력·변화구 좋아”

프로야구 ‘명가’ 재건을 위한 KIA의 발걸음이 바쁘다.

올해 한국시리즈 열 번째 우승 목표를 세운 KIA는 메이저리그 출신의 베테랑 투수 호세 리마(35)까지 영입해 반드시 정상을 되찾는다는 방침이다.

김조호 KIA 단장은 2일 “호세 리마는 새 외국인 투수의 유력한 후보다. 아직 계약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괌 동계훈련을 시작하는 다음 주까지 외국인 선수 계약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조범현 KIA 감독도 “지난 해 11월 말쯤 멕시칸리그에서 리마가 경기에서 뛰는 것을 지켜봤다. 나이가 들어 전성기는 지났지만 제구력과 떨어지는 변화구가 좋다. 또 큰 경기에 강하고 경험이 풍부한 장점이 있어 현재 유력한 후보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리마는 1998년부터 국내 프로야구에 들어온 외국인 선수 가운데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화려한 경력을 거친 선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쇼맨십과 독특한 제스처로 유명한 리마는 1994년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에서 빅리그에 입문한 뒤 13시즌 통산 89승102패, 평균 자책점 5.26을 기록했다.

특히 1999년 휴스턴 애스트로스에서 21승 10패, 3.58의 뛰어난 피칭으로 팀을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우승으로 이끄는데 앞장섰다. 하지만 2000년 이후 매 시즌 10승에 못 미치는 부진에 허덕이다 2004년 13승(5패)을 거두면서 재기하는 듯 했지만 2005년 캔자시스티 로열스에서 5승16패로 다시 내리막길을 걸었다.

2006년 2월에는 뉴욕 메츠와 마이너리그 계약한 뒤 절치부심했지만 메이저리그에서 평균 자책점 9.87, 4패에 그친 뒤 뒤 지난 해 멕시칸리그에서 13승4패, 평균 자책점 3.60으로 활약했다.

한편 KIA는 리마와 더불어 새 외국인 타자로 지난 시즌 LA 다저스에서 뛰었던 내야수 윌슨 발데스(29)의 영입도 추진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파워 넘치는 빙상 질주

2일 오후 서울 태릉선수촌 국제스케이트장에서 열린 '회장배 전국남녀 빙상경기대회' 남자 대학부 1000m 경기 참가 선수들이 역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림픽 육상 100m 금 게이틀린 금지약물 복용…4년간 출전정지

금지약물을 복용한 2004년 아테네올림픽 육상 남자 100m 금메달리스트 저스틴 게이틀린(26·미국)이 4년 간 출전정지 처분을 받았다.

미국반도핑기구(USADA)는 2일(이하 한국시간) 게이틀린 사건을 조사해온 3인 징계위원회가 2-1 판정으로 게이틀린에 대한 징계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은 금지약물 테스토스테론을 복용한 것으로 드러난 게이틀린을 상대로 징계를 논의한 결과 두 명의 징계위원이 4년 이하로는 출전정지 기간을 줄일 수 없다는 견해를 고수했다고 전했다.

게이틀린은 이에 따라 2010년 5월24일까지 올림픽을 포함한 모든 육상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2006년 금지약물 양성 반응 시점부터 4년간 징계가 적용된다.

게이틀린은 2006년 5월 카타르 도하 슈퍼그랑프리대회에서 9초77로 100m 세계 타이기록을 세웠지만 금지약물 복용 사실이 드러난 뒤 기록이 전면 삭제됐다.

올림픽 핸드볼 예선 재경기 일정 ‘감감 무소식’

다시 치르기로 한 베이징올림픽 남녀 핸드볼 아시아 예선의 개최 장소와 일정이 새해가 밝았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다.

국제핸드볼연맹(IHF)은 제18회 세계여자선수권대회 폐막 직후인 구랍 18일 프랑스 파리에서 이사회를 열고 심판 편파판정으로 얼룩진 올림픽 아시아 예선을 이달 안에 다시 열기로 결정했고 72시간 내에 재경기 일정과 장소를 공지하겠다고 했다. 이어 사흘 뒤인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 관계기관과 대회 개최를 논의 중이다. 합의가 도출되는 대로 세부 사항을 다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열흘이 지났어도 IHF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재경기 일정 및 장소 결정을 아시아핸드볼연맹(AHF)에 맡겼기 때문이다.

편파판정 피해자에서 수혜자가 된 한국은 이번 재경기에서 남녀 모두 우승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승하지 못할 경우 ‘실력도 안되면서 편파판정 운운하며 국제 핸드볼계를 시끄럽게 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스포츠투데이

3일(목)

▲07/08 NBA〈휴스턴 : 보스턴〉(09 : 30·SBS스포츠)
▲07/08 여자프로농구〈우리은행 : 금호생명〉(16 : 50·SBS스포츠)
▲07/08 V리그 남자부〈현대캐피탈 : 상무〉(18 : 30·KBS N SPORTS)
▲07/08 프로농구〈SK : KTF〉(18 : 50·XPORTS·SBS스포츠)